

한국어 분열구문의 유형과 특성: HPSG 분석*

이남근
(조선대학교)

Lee, Nam-Geun. 2008. Two Types of Korean Cleft Constructions: An HPSG Approach. *Linguistic Research* 25(1), 25-38. Like English, Korean employs several types of cleft constructions. This paper reviews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two main types of Korean cleft constructions: pseudo cleft and inverted cleft construction. In particular, it reviews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properties of these two types and then discusses the interaction among grammatical levels. The paper then sketches an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analysis that can captu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wo types of Korean cleft constructions. (**Chosun University**)

Keywords cleft construction, relative clause, HPSG

1. 서 론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영어의 분열구문과 유사한 구문들을 가지고 있다 (Collins 1991, Sohn 2004, Jhang 1994).

- (1) a. It is the novel that John likes _____.
b. What John likes _____ is the novel.
c. This novel is what John likes _____.
- (2) a. [존이 ____ 좋아하는 것]은 [그 소설]이다.
b. 그 소설이 [존이 ____ 좋아하는 것이다].

허사(expletive)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1a)과 같은 *it-cleft* 분열구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1b)나 (1c)와 같은 유사분열문(pseudo)이나 도치분열문(inverted cleft) 구문을 가지고 있다. 유사 분열구문 (2a)를 살펴보면 목적어 논항(argument)이 공소인 분열절 ‘존이 좋아하는 것’과 초점구 ‘그 소설’ 그리고 계사 ‘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도치분열문 (2b)는 분열절과 초점이 도치된 어순이며, 목적어 논항이 주격(nominative) 초점구로 실현되어 있다. 이러한

* 이 논문은 200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줄고를 심사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열문 공통점은 정보구조에 찾을 수 있다. 즉 이 두 경우 모두 분열절에 나타나는 ‘존이 x를 좋아한다’ 배경(background) 정보와, 초점 ‘그 소설’, 그리고 이 변항 x가 바로 ‘그 소설’을 단언하는 구조이다. (cf. Davidse 2000, Kiss 1999, Heycock and Kroch 1999)

비록 한국어의 분열구문이 영어 분열구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형태적 차이로는 한국어의 분열절은 (2)에서 보듯이 의문사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명사로 간주되는 ‘것’에 의해서 도입된다.

또한 Sohn(200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NPI)의 허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3) a. John didn't read any textbooks.
 b. 존이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
 (4) a.(?)[What John didn't read ____] was any textbooks.
 b. *[존이 ____ 읽지 않은 것]은 아무 책도이다.

일반적으로 (3)에서 처럼 ‘any textbooks’나 ‘아무 책도’와 같은 부정극어는 동일한 절에 있는 부정어에 의해서 허가된다. (3)의 문장이 유사 분열문으로 바뀔 때 동일절 조건에 따른 부정극어의 문법성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한국어 문장 (4b)는 비문이지만, 영어의 분열구문 (4a)에서는 부정극어와 이를 허가하는 부정어 didn't가 동일절에 있지 않아도 허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어 분열구문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제약기반이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열문의 구문적 속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의 특징은 분열절 내의 변항값(variable)이 바로 초점구이다. 이러한 제약은 유사분열문과 도치분열문 모두에 적용된다.

- (5) a. [엄마가 ____ 읽은 것]은 다름 아닌 편지였다. [엄마가 읽은 것=편지]
 b.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어다. [내가 좋아하는 것=영어]
 (6) a. 이 편지가 /는 [엄마가 ____ 읽으신 것]이다. [이 편지=엄마가 읽으신 것]
 b. 그 책이 /은 [내가 ____ 어제 읽은 것]이다.

(5)와 (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열절 내에 논항(argument)은 공소(gap)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a)와 (8b)처럼 비문이 된다.

- (7) a. *[내가 국어학을 좋아하는 것은] 물리학이다.
 b. [내가 ____ 좋아하는 것은] 국어학이다.
 (8) a. *물리학은 [내가 국어학을 좋아하는 것]이다.
 b. 물리학은 [내가 ____ 좋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값이 논항이 될 수도 있지만, 부가어도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사분열 구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9) a. 촛불이 입김을 불면 꺼지는 것은 [산소가 부족해서]이다.
 b.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이다.
 c.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준 것은 [어제]이다.

그러나 초점구가 부사가 부가어로 쓰인 부사구나 문장 S는 허용되지 않는다.

- (10) a. *철수가 군것은 [비굴하게]이다.
 b. *존이 달린 것은 [천천히]이다.
 (11) a. *존이 믿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고]이다.
 b. *철수가 메리를 만난 것은 [식사를 하고]이다.
 c. *철수가 메리를 만난 것은 [식사를 하러]이다.

또한 초점구는 문법적인 주격(nominative)이나 목적격(accusative) 등은 올 수 없지만, 초점구가 처소격(locative)이나 한정사(delimiter) 등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12) a. *철수가 먹은 것은 사과를이다.
 b. *사과를 먹은 것은 철수가이다.
 (13) a. 존이 메리를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이다.
 b. 존이 달려간 것은 병원(으로)이다.
 c. 존이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이다.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초점구의 의미격(semantic case)은 (13)의 경우처럼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치 분열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역을 가진 부가어가 사용될 수 없다.¹⁾

1) 아래 (ia)와 같이 부가어가 문두에 격이 없이 오는 경우는 사건(event)을 강조하는 분열구문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처소격구는 어순뒤섞임(scrambling)이 일어난 사건강조의 (b)나 (c)구문과 차이가 없는 구문이다.

- (i) a. 도서관에서 존이 메리를 만난 것이다.
 b. 존이 도서관에서 메리를 만난 것이다.

- (14) a. *도서관이 존이 메리를 만난 것이다.
- b. *병원이 존이 달려간 것이다.

분열절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장거리의존구문(long distance dependency)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분열절의 내포문의 공소도 초점구와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5) a. [철수가 [내가 ___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리학이다.
- b. [모든 사람들이 [철수가 ___ 합격했다고] 생각한] 것은 사법시험이다.

위의 (15)에서 초점구 ‘물리학’과 ‘사법시험’은 각각 (15a)와 (15b)의 내포문의 공소에서 기인 한다. 그러나 부가어는 이러한 장거리 의존현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다음 예문 (16)에 서처럼 부가어 초점구인 ‘이 회사에서’나 ‘어제’는 내포절인 ‘메리가 울었다’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절 용언인 ‘말한’에 연결되어 있다.

- (16) a. [존이 [메리가 울었다고] 말한 것은] 이 회사에서이다.
- b. [존이 [메리가 울었다고] 말한 것은] 어제이다.

또한 내포절은 섬제약(island constraint) 중 복합명사제약(CNPC: 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을 준수하지만 의문사제약(Wh-island)은 위반할 수 있다.

- (17) a. [존이 ___ 비판한 것]은 그 논문이다.
- b. 존이 [그 논문을 쓴 사람을] 비판하였다.
- c. *[존이 [___ 쓴 사람을] 비판한 것]은 그 논문이다.
- (18) a. 존이 [누가 그 책을 샀는지] 궁금해 하였다.
- b. [존이 [누가 ___ 샀는지] 궁금해 한 것]은 그 책이다.

(17c)는 ‘그 논문’이 복합명사구내의 요소이기 때문에 비문이지만, (18b)의 경우 초점 ‘그 책’이 의문절의 변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문사 제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절 내의 공소(gap)와 초점구가 문법적 연결성(connectivity)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부정극어의 관점에서 보면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게 행동하지만, 결속(binding)에 있어서는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c. 존이 메리를 도서관에서 만난 것이다.

- (19) a. John loves himself.
 b. What John loves is himself.
- (20) a. 존_{-i}이 자기자신_{-i}을 좋아한다.
 b. [존_{-i}이 ___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_{-i}이다.
- (21) a. *John loves him.
 b. *What John loves is him.
- (22) a. *존_{-i}이 그_{-i}를 좋아한다.
 b. *[존_{-i}이 ___ 좋아하는 것]은 그_{-i}이다.

(19)과 (20)를 살펴보면 재귀사 ‘himself’나 ‘자기 자신’이 비록 분열절 밖에 있지만, 분열절 내에 있는 선행사 ‘John’이나 ‘존’에 의해서 허가된다. 이에 반해 대명사 ‘him’이나 ‘그’는 분열절 내의 ‘John’이나 ‘존’과 공지시 될 수 없다. 이는 초점구의 재귀사나 대명사가 마치 분열절 내에 있는 것과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극어가 있는 문장과는 달리 영어와 한국어는 재귀사의 경우 분열 구문에서도 동일절 조건이 똑같이 준수 된다.

3. HPSG적 분석

3.1 ‘것’의 속성

한국어 분열구문에는 영어의 의문사와 달리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표현 ‘것’은 지정어(specifier)인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 DP)와 결합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불완전 명사로 취급되어 왔다.

- (23) 존의 것, 그 학생의 것, 새 것, 그 것

그러나 ‘것’이 (24)와 같이 보문절이나 분열구문에서 사용될 때 문법적 위상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 (24) a. [존이 착하다는 것]을 몰랐다.
 b. [존이 ___ 먹은 것]이 바로 이 사과이다.

(24a)와 같은 경우 ‘것’이 서술절인 문장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에서 ‘것’을 보문소(complementizer)로 취급해 왔다. 비록 ‘것’이 서술절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CP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 속성은 명사적(nominal) 성질을 띠고 있다 (cf. Kang 2006). 예

를 들어 CP절은 주격이나 목적격을 수반할 수 없지만, 분열절의 ‘것’은 얼마든지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다.

- (25) a. *[존이 착하다]를 믿었다.
- b. [존이 착하다는 것]을 믿었다.
- c. [존이 읽은 것]이 이 책이다.

특히 분열절의 ‘것’은 명사에 의해 대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명사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 (26) a. [존이 읽은 것 / 책]이 바로 이 책이다.
- b. 이 책이 바로 [존이 읽은 것 / 책]이다.

또한 분열절이 관계절과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점이 ‘것’의 명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것’이 관계절로 사용된 경우 관계절의 술어는 완전히 굴절될 수 없다.²⁾

- (27) a. 톰은 [존이 _____ 학교에 가져 온 것]을 메리에게 주었다.
- b. *톰은 [존이 _____ 학교에 가져왔다는 것]을 메리에게 주었다.
- (28) a. [존이 학교에 _____ 가져 온 것이]이 책이다.
- b. *[존이 학교에 _____ 가져왔다는 것이] 이 책이다.

만약 분열절의 ‘것’이 관계절의 ‘것’과 다른 문법적 속성을 가졌다면 관계절과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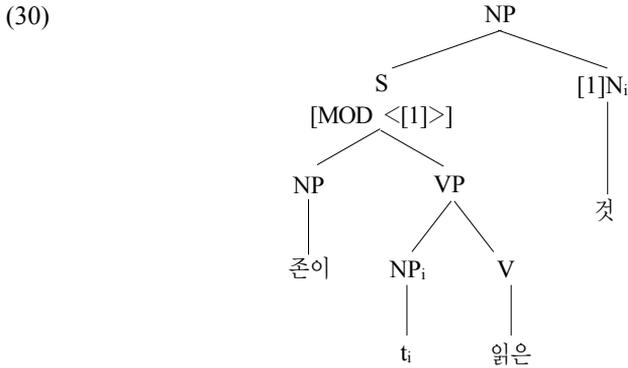
3.2 분열구문의 통사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구문의 분열절은 관계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관계절과 유사 분열절을 살펴보자.

- (29) a. [존이 _____ 읽은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b. [존이 _____ 읽은 것]이 이 책이다.

2) 위의 (27b)와 (28b)가 정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공소가 pro로 실현된 경우이다.

(29a)는 관계절을 포함한 구문이며, (29b)는 분열문이다. 비록 그 기능이 다를지라도 위의 두 문장에서 [존이 읽은 것]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cf. Kim 2004).



위의 구조에서 명사 ‘것’은 목적어가 공소(t_i)인 불완전한 문장인 관계절 S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때 ‘것’은 공소와 공지시하고 있다. 관계절 (29a)의 경우는 이 공지시 값이 지시하는 개체(individual)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고, 분열구문 (29b) 경우 이 개체가 ‘이 책’이 지시하는 개체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의미적 관계는 계사의 어휘정보에서 출발한다(cf. Kim and Sell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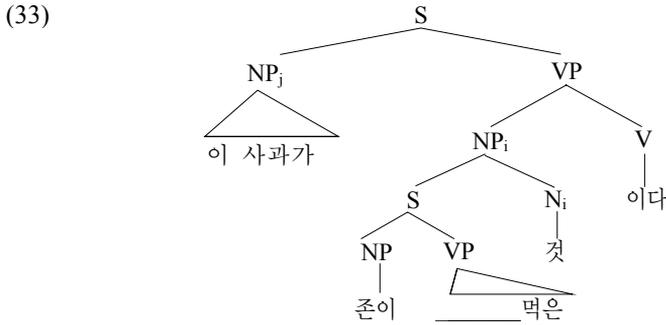
(31) 이다
 [ARG-ST <NP_i, XP_i[PRED+]>]

위 어휘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이다’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고, 둘째 논항은 첫째 논항의 술어적(PRED)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열구문과 달리 도치분열구문은 아래와 같이 초점구가 주어나 주제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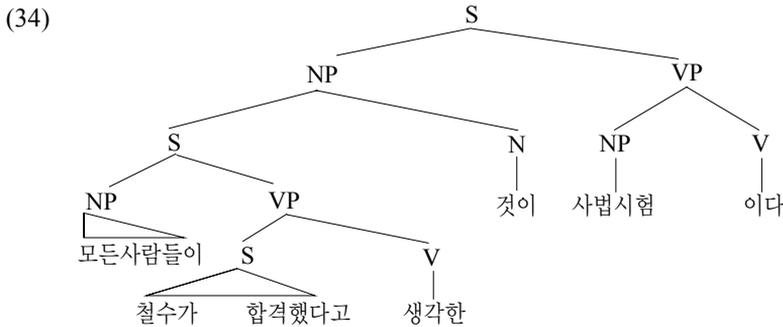
(32) 이 사과가 / 는 바로 [존이 _____ 먹은 것]이다.

이러한 도치분열구문 역시 유사분열구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도치분열구문은 의미적으로 분열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초점구가 문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초점구가 분열절 내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지만, 분열구문에서는 문두에서 주격과 함께 주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요소간의 연결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분열절을 관계절과 유사한 구조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곧 분열구문이 장거리의존현상을 보여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장거리의존 현상을 보여주는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구조를 보면 내포절의 목적어가 공소가 초점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분열문의 구문적, 의미적 속성

유사분열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점구가 의미격(semantic case)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35) a. [존이 메리를 만난] 것은 공원(에서)이다.
 b.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이다.

이러한 예문에서 의미격을 선택적으로 가지는 초점구는 분열절에서 부가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논항이 초점이 되는 것과 달리 부가어가 초점인 경우 장거리의존현상이 없다.

- (36) a. [톰은 [존이 메리를 만났다고] 생각한] 것은 공원(에서)이다.
 b. [톰이 [이 책이 중요하다고] 믿은] 것은 여기서(부터)이다.

위 두 예문의 경우 초점구인 ‘공원’이나 ‘여기’가 연결된 부분은 내포절이 아니라 상위절이다. 이러한 제약은 초점구가 때를 나타내는 부가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 (37) a. [존이 메리를 만난] 것은 어제이다.
 b. [톰은 [존이 메리를 만났다고] 생각한] 것은 어제이다.

(37b)에서는 순수 부가어인 ‘어제’는 내포절의 용언 ‘만났다’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분열절 주절의 용언인 ‘생각한’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논항과 달리 부가어는 공소(gap)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거리 의존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분열절에서 초점이 부가어인 경우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항과 부가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것’의 사용 용법을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 (38a)의 보문 구조와 (38b)의 관계절 구조를 비교해 보자.

- (38) a. [[존이 책을 읽은] 것을] 믿었다.
 b. [[존이 _ 읽은] 것을] 버렸다.

두 문장의 차이는 (38a) 문장에서는 ‘것’이 완전한 문장과 결합한 것이고 (38b) 문장에서는 ‘것’이 공소가 있는 불완전한 문장과 결합한 것이다. 특히 (38b)에서는 ‘것’이 통사적으로는 관계절의 핵어(head) 역할을 하며, 의미적으로는 ‘thing’이라는 독립적인 개체(individual)를 지시한다. 이에 반해 (38a)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문절의 사건(event)을 가리키며, 통사적으로 보문절이 명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분열문에 있어서 초점구가 논항인 경우는 관계절 구조 (b)와 유사하지만, 초점이 부사구인 경우 후자의 경우처럼 사건(event)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36)의 의미는 ‘존이 메리를 만나다’라는 사건과 ‘어제’라는 시점이 술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과’와 ‘존이 먹은 것’이 지시하는 개체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의미적 차이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계사 ‘이다’의 중의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두 분열구문의 의미적 차이는 유사분열구문에서 초점구는 다양한 범주를 허용하지만, 도치분열구문에서는 명사구만 초점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42) a. *어제가 존이 사과를 먹은 것이다.
b. *방에서가 존이 사과를 먹은 것이다.

3.4 연결성(connectivity)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절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초점구가 분열절 내의 요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은 결속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3) a. [존_i이 ___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_i이다.
b. *[존_i이 ___ 좋아하는 것]은 그_i이다.

일반적으로 결속현상에 따르면 (43a)는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고 (43b)는 정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 (43a)은 재귀사 ‘자기 자신’이 동일절이 아닌 ‘존’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이고, (43b)에서는 대명사 ‘그’가 분열절의 주어 ‘존’과 공지시 될 수 있지만 비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들 재귀사와 대명사가 마치 분열절 내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연결성이 있다고 한다.

분열절 분석에서 ARG-ST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결속(binding) 현상에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귀사나 대명사가 비록 분열문의 선행사와 동일한 절에 있지 않지만 서로 결속 관계를 가진다. 결속 현상이 논항구조 ARG-ST에 정의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결속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아하다’의 논항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4) 좋아하다
a. [ARG-ST <NP[존]_i, XP_{-i}[자기자신]>]
b. [ARG-ST <NP[존]_i, XP_{-j}[그]>]

Sag et al. (200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속조건이 논항구조 ARG-ST에서 정의된다면, 두 번째 논항이 재귀사(reflexive)이면 선행하는 첫 번째 논항이 선행사(antecedent)이어야만 한다. 반면 두 번째 논항이 대명사(pronoun)류이면 이 요소가 논항구조 내에서 결속(binding)

되지 않아야한다.

이와 같이 결속현상은 영어와 한국어에서 차이가 없지만, 부정극어 현상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보여 주고있다.

(45) a.(?)What John didn't read was any textbooks.

b. *[[존은 _____ 읽지 않은] 것은] 아무 책도이다.

이러한 두 언어의 차이점은 부정극어 현상이 적용되는 문법의 단계(level)에서의 차이로 기인한다. 즉 NPI와 이를 허가하는 부정어(negator)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문법적 단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영어의 경우 결속은 어휘의미에 가까운 논항구조 (ARG-ST)내에서 허용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통사정보인 항가(VALENCE) 정보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어휘 정보를 살펴보자.

(46) a.	<div style="text-align: center;"> <p>didn't</p> <p>SUBJ <[1]NP></p> <p>COMPS <[2]VP[GAP NP]></p> <p>ARG-ST <[1]NP, [2]VP></p> </div>
b.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않다</p> <p>SUBJ <[1]NP></p> <p>COMPS <[2]VP[GAP NP]></p> <p>ARG-ST <[1]NP, [2]VP></p> </div>

위 어휘정보에 주어진 것과 같이 'didn't'와 '않'은 동일하게 두 개의 논항을 취하며, 두 번째 논항이 VP로 COMPS 값으로 실현된다. (45a)와 (45b)의 경우 이 VP 논항의 목적어인 'any textbook'와 '아무 책도'가 공소 GAP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소에 관한 정보는 COMPS 값에는 있지만, ARG-ST에는 없다는 것이다. 부정어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ARG-ST 정보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부정극어가 허가되고 COMPS 정보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부정극어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어의 경우 부정어가 통사 정보인 COMPS 값에서 명시적이어야 하고 영어에서는 논항구조 ARG-ST에서 명시적이라 가정한다면, (42a)와 (42b)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영어와 유사하게 한국어도 분열문(cleft constructions)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법적 속성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분열문은 크게 유사분열문과 도치분열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공통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각각의 구문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구문의 차이와 공통점을 ‘것’과 ‘이다’의 어휘적 정보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김종복. 2004. 『한국어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 Collins, Peter C. 1991. *Cleft and Pseudo-Cleft Constructions in Englis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avidse, Kristin. 2000. A Constructional Approach to Clefts. *Linguistics* 38.6: pp. 1101-1131.
- Heycock, Caroline and Anthony Kroch. 1999. Pseudo-cleft connectedness: Implications for the LF interface level. *Linguistic Inquiry* 30, pp. 365-397.
- Kang, Bosook. 2006. Some peculiarities of Korean ‘kes’ cleft constructions. *Studia Linguistica* 60.3: pp. 251-281.
- Kiss, Katalin E. 1999. The English Cleft Construction as a Focus Phrase. In, pp. 217-29.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8.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7. Nominalizer kes and Information Structure. Paper presented in the e 12th ISOKL, Harvard University, August 3-5, 2007.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hang, Sea-Eun. 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Ph.D. Dissertation.
- Sohn, Keun-Won. 2004. Kes-clefts, Connectedness effects,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 pp. 561-571.

이남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영어교육과
501-759
E-mail: nglee@chosun.ac.kr

접수일자 : 2008. 05. 07

계재일자 : 2008. 06. 09